

오늘 2012년 2월 시의회 정례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2012년도의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의 심의를 부탁하는 데 있어서 신년도의 시정 운영에 임하는 소신의 일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머리

제가 시장으로서 이치카와시의 도시살림을 맡아 한결같이 매진한 2년 남짓한 기간이 지나, 지금 저의 임기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작년 1년간을 되돌아 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 재해는 우연히도 작년의 시의회 2월 정례회의 회기중에 발생하여, 이 시의회장에서도 일찌기 경험한 적이 없는 큰 진동이 있었습니다. 폭이 약 200킬로미터, 길이가 약 500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범위한 진원 지역은 거대한 해일이 되어 태평양 연안을 덮쳐, 많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재해를 입은 지역과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 이치카와시에도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적어도 170명을 넘는 피해민이 살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생활의 안정과 밝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진원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관계로, 큰 피해를 주는 건물의 붕괴, 대규모 화재의 발생, 해일에 의한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도쿄 만의 연안부를 중심으로 한 지면의 액상화 현상은 시민생활과 기업활동 등에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거기에 따라 자연계에 방출된 매우 방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 확산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 후 전력수급 핍박에 따른 계획정전이 실시되어, 시민생활과 기업활동 등은 커다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작년에는 시민, 자치회, 기업, 그리고 학교 등과 협동으로 추진한 식물커파트 사업을 볼 때마다, 한사람 한사람의 절전의식의 고양, 그리고 각 가정이 생활패턴을 다시 검토하여 지혜를 모으고 연구를 거듭하여 절전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민과 재해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역의 연대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 그리고 절전에 대한 대책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의 본연의 자세를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마음자세를 소중히 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은 확실하고도 큰 힘이 되어, 지역과 더불어 일본 전체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Gambaro Tohoku', 그리고 'Gambaro Nippon'의 기치 하에서 마음을 하나로 뭉치면 반드시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가족과 지역이 결합되는, 서로 돕는 정신 등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되었던 작년 한해였습니다. 앞으로의 일본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옛부터 우리 일본인에게 이어져 온 진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1. 시정운영의 기본방침

신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침 중 그 첫번째는 지진 재해에 대한 대책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시민의 방재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더욱 확장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의식을 더욱 소중히 해 나가는 것이 지역의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한편, 행정에 대해서도 위기관리기능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는 수도직하형 지진에 대비하여, 조직체제의 강화 및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방재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나아가 다양한 방재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재해에 강한 도시조성을 진행시켜 가겠습니다.

두번째 기본방침은 새로운 도시조성을 위한 대책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인구집중이 계속되어 온 수도권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 시의 상주인구도 작년과 재작년에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등이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과 기업의 활동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막대합니다.

특히 재정구조의 측면에서 개인 시민세의 비율이 높은 우리 시에서는 행정운영 그 자체가 인구의 동향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살아 보고 싶은 도시 그리고 계속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존 시가지를 살기 편하게 하는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무사시노선 연선 지역을 비롯한 시가지 개발 조정 구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 및 새로운 거리 조성 검토를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기본방침은 우리 시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프로젝트를 착실하게 완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2015년도 완성을 목표로 하여 현재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외환도로를 비롯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진행되어 온 도시기반 강화사업이 총체적인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3·4·18호 정비사업, 초중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의 내진개수사업, 클린센터 유지 보수 사업, 도쿄 베이·우라야스이치카와 의료센터 정비사업, 모토야와타역 북쪽출구 A지구 시가지

재개발사업 등의 대형 프로젝트는, 우리가 생활하는 도시의 기반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 시의 오랜 염원이었던 이러한 사업의 완성을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도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 의료, 교육 등의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행정기반 확립이 필요하므로 한정된 사람, 물건, 재정, 정보 등과 같은 경영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재무행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행정개혁대강은 2009년 4월부터 2013년도 말까지의 5년간으로 되어 있지만, 시정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행정개혁대강이 종료되는 2013년도를 기다리지 않고, 1년 앞당겨 새로운 재무행정개혁대강을 책정하여 지속가능한 재무행정운영의 주춧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저의 정치신조인 ‘시민에서 출발하는 행정’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시민의 의견에 대해서는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시장 투서함 또는 시민 요구 시스템을 한층 더 활용함과 동시에, 그 경향을 분석하여 시책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전에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 시에서는 측정된 방사선량에 대해 시의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데이터 공표를 해 왔습니다만, 알기 쉬운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시민 여러분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시각적으로도 확인하기 쉽게 하는, 최신 측정치를 시민용 GIS인 ‘이치안나이’에서 보실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보다 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속성을 염두에 둔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육아세대와 고령자세대의 속성의 차이는 그 각각 요구사항의 차이가 되기도 하므로 추진해 나가는 시책도 다른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시는 지역의 내력 및 특징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서로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민시점과 지역시점을 주안으로 한 행정운영에 임하기 위해서 신년도는 더욱 나아가 행정에 직접 반영되는 시민의 의견과 함께, 지역별 인구구성과 전입, 전출 등과 같은 사회동태 등 우리 시가 지니고 있는 정보를 활용한 마케팅을 전개하여, 비용 대비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면서 행정 전체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를 비롯해 이치카와시를 둘러싼 사회환경은 날마다 변하고 있지만, 저는 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생활의 보금자리로서,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살기 좋고 안심할 수 있는, 활기가 넘치는 이치카와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자신이 지닌 지식과 특기를 이곳 이치카와에서 마음껏 발휘하여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크게 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신년도의 중점시책

그럼, 교육위원회 소관사항도 포함하여 제가 신년도의 중점시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년도는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을 살려 시민의 생명과 재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한 후 육아지원과 방법에 대한 대처 등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에서 ‘안심’을 느끼는 도시, 그리고 도로 등 도시기반의 정비를 착실하게 추진하여 도시의 매력을 높여 시민들이 ‘쾌적’하다고 느끼는 도시를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경제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여, 사람과 지역이 연대하여 시민이 활약할 수 있는 ‘활력’이 있는 도시를 목표로 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안전대책

그러한 의미에서 신년도는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진재해대책’ 및 ‘방사능대책’의 2가지 안전대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먼저 ‘지진재해대책’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수도직하형지진에서는 우리 시도 심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지만, 그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자조·공조를 기본으로 한 지역방재력과 행정 및 관계기관 등이 제휴한 종합적인 방재대책이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지진 재해시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 직속의 위기관리실을 설치하여 위기관리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방재계획에 대해서는 동일본 대지진재해의 피해 및 대처과정을 검증하여 우리 시 사정에 맞는 방재계획으로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진재해 후의 한시라도 빠른 복구와 부흥을 위해서는 긴급활동도로와 같이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도 불가결합니다.

다리는 거리와 거리를 잇고, 우리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며, 또한 재해시의 피난경로로서도 중요한 도로시설입니다.

지바현이 건설하고 있는 가칭 요덴바시 다리, 또는 재가설이 예정되어 있는 교토쿠바시 다리 및 그 외의 교각도 지진재해 후의 구조활동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기정비를 국가와 현에 대해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그 안전대책으로서 시내 133개 다리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신년도에는 교량의 장기 수명화를 위해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량 장기수명화 수선계획’을 책정함과 동시에 무사시노선 철로상 다리의 내진화를 진행 시켜 가겠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지진재해 대책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중 민간주택 등의 지진재해 대책에 따라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한 시멘트 블록담의 제거 등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가겠습니다.

목조주택에 대해서는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시작된 ‘목조주택 방재리폼 추진사업’에 따른 방재 대책에 대한 지원 외에도 전문가에 의한 ‘안심주택상담’을 실시하는 등 지진재해에 대한 대비를 충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원 및 방과후 보육클럽에 대해 비상용 식량이나 음료수, 긴급시 대응용 통신수단 등의 준비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진재해를 계기로, 금년도에 해일 등 발생시의 일시피난빌딩으로서 쇼핑센터를 경영하는 기업과, 귀가곤란자 지원으로서 호텔 등을 경영하는 기업과 협정을 체결했으며, 그 외에도 재해시에 발생하는 쓰레기와 건축부재 등의 수집 및 분뇨처리 등에 대해서도 청소사업 관련단체와 지원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신년도에도 계속해서 민간부문에 널리 호소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역적인 시점에서 도시간 상호응원협정을 한층 더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내진강도가 부족한 본청사에 대해서는 장래의 청사에 요구되는 모습을 포함해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함과 동시에, 청사정비 기본구상 책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한 시점에서 검토한 후 ‘청사정비기본구상’을 책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청사정비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사능대책’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방사능대책을 일원화하기 위해 2011년 11월에 방사능 대책 담당실을 설치하여 방사선량의 저감 대책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신년도부터는 위기관리실에 방사능대책과를 설치하여 체제 강화를 도모합니다.

계속해서 시내 공공시설 등의 방사선량 측정을 실시하면서, 집수조의 청소 및 모래사장 관리, 토사와 잡초 제거 등의 저감대책을 실시해, 시내 전역에서 추가 피폭선량을 연간 1밀리시버트 이하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방사능에 관한 시민강좌를 실시하여 올바른 지식의 보급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발신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및 보육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에서 사용빈도나 제철 산지의 변화에 따라 납입량이 많은 식재료 및 실제로 어린이들에게 제공된 급식에 대해 방사성물질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보다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내의 농산물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여 음식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 안심할 수 있고 쾌적한 활력이 있는 도시 만들기

이상의 안전 대책을 도모한 다음에 제2차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10년간의 도시조성 목표인 ‘안심할 수 있고 쾌적한 활력이 있는 도시’에 따라 말씀을 드립니다.

①안심할 수 있는 도시조성

우선, 안심할 수 있는 도시조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과 안심이라는 2가지는 유사한 말이지만, 그 파악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란 방사선량의 수치 및 내진화율 등과 같은 말하자면 객관적인 시점에서 판단됩니다.

한편, ‘안심’이란 주관적인 것으로서 각각 개인의 생각이나 파악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같은 상황이라도 안심을 느낄지 어떨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계자가 상세한 조사와 대책을 실시한 다음에 ‘안전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심을 느끼는 분이 있는 반면 불안을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는 앞으로도 일본 전국의 자치단체가 목표로 해야 할 도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한 도시조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서로가 강한 신뢰관계를 토대로 한, 안심을 느끼는 도시를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비로소 이 도시에서 자녀를 낳고 길러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계속 살고 싶다고 느끼는, 육아환경과 교육환경의 충실화로도 연결되는 시책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먼저 대기아동에 관한 시책입니다.

신년도는, 가칭 키즈 스테이 바라키나카야마 보육원의 개설 및 아라이 보육원의 재건축에 따라 정원을 111명 늘립니다.

나아가 2013년 4월의 개원을 목표로 하여 히가시코쿠분 2초메에 정원 90명, 교토쿠에키마에 1초메에 정원 60명의 보육원을 신설하는 것 외에도, 10명의 정원 증가를 가능케 하는 마키바 보육원 재건축과 함께 함께 160명의 정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화되는 보육 수요를 고려해 시의 인정을 받은 가정보육원의 충실을 도모함과 동시에 간이보육원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안전성 등의 보육환경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간이보육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대기아동 대책으로서 인가보육원의 설치가 어렵고, 또 보육 수요가 높은 역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보육원의 설치를 촉진해 나가는 인증보육원제도 창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료 가격의 상승에 따른 급식비 가격인상 등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도 쌀을 중심으로 한 식재료 현물급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년도부터는 초등학교 등에 3명 이상의 아동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 3명째 이후의 급식비 무료화를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실현에 관한 시책입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신년도는 초등학교 10교 11동, 중학교 5교 5동의 내진보강 개수공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고쿠분 초등학교 및 제4중학교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실시합니다.

그 외의 공공시설 내진보강 개수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어 교토쿠 출장소와 시영주택 1동의 개수공사를 진행시킴과 동시에 신년도부터는 교토쿠 보육원, 보건센터, 기타 소방서 소야 출장소, 시영주택 2동의 개수공사를 실시합니다.

계속해서 방법도시조성 추진에 대해입니다.

안전하고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치카와시 폭력단 배제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평온한 생활 및 사업활동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힘에 기반한 지역특성에 맞는 방법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가고 있는 점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제휴한 방법도시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방법과를 총무부로부터 시민부로 이관합니다.

나아가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빈집 등은 방법, 방재, 위생환경 등의 면에서 지역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년도에는 빈집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독자적인 제도를 창설하여 지역의 주거환경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② 쾌적한 도시 만들기

다음은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건강’과 ‘협동’ 등의 키워드를 통해 목표로 해야 할 도시상으로서 ‘건강도시 이치카와’

를 내걸고 있지만,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보다 구체화하여 눈으로 보고 실감할 수 있도록 ‘가드닝 시티 이치카와’를 출범시켰습니다.

신년도는 기획부 내에 가드닝과를 설치해 시민과의 파트너십에 따라 이치카와의 매력을 높여 나가는 사업을 전개합니다.

‘가드닝 시티 이치카와’의 구체적인 추진책으로서는 거리 가드닝 축제의 개최, 가드닝 시티 이치카와 서포터 등과의 협동을 통한 꽃묘종 만들기 등에 따라 마음과 신체의 건강 만들기 및 지역의 매력 만들기, 시민주체 도시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주요도로 및 역전 광장의 화단 정비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나아가 금년도에 완성될 예정인 화단에 대해서는 시민의 협력을 얻으면서 매력적인 장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간선도로 정비는 쾌적한 도시조성에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남북교통망 및 유역 하수도 등의 장기간에 걸친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3·4·18호의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99%의 용지를 확보해 두고 있지만, 사업에 대해 지역 분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2015년도 완성을 목표로 하여 정비를 진행시켜 가겠습니다.

또한, 현의 사업인 도시계획도로 3·4·13호에 대해서는 바라키 인터체인지까지의 조기사업화를 계속해서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외환도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외환사업자 및 지바현 등의 관계기관과 공정 등에 대해 상세한 조정을 하여 관련된 하수도와 도로 등의 정비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선도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생활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협소도로 대책으로서 폭 4미터 미만의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 건축 등에 따라 부지를 셋백(거리제한)할 때 도로확폭에 필요한 측량 및 정비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한층 더 이용하기 쉬운 제도가 되도록 검토해 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협소도로 대책인 ‘진심 도로’는 금년도에 막 시작되었지만, 연도말까지 4개소가 정비될 전망입니다. 신년도는 지금까지의 우선노선 정비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비 장소 공모 등 시민의 협력을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도로 주변에 서 있는 전주도 위치에 따라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좁히고 있는 원인이 되므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 재건축에 따른 이전과, 택지개발 등에 따른 설치시에 도로상의 전주를 부지 내에 설치하는 등의 수법을 사업자와 협의하면서 진행해 가겠습니다.

게이세이본선 연선의 도시조성에 대해서는 게이세이 야와타역 주변지구 및 이치카와마마역과 고노다이역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번칙오차로’에 대해 검토해 왔습니다만, 신년도는 널리 시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시민의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게이세이 야와타역 주변의 과제인 역 서쪽 지역의 스가노5호 건널목에 대해서는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쪽에 맞추어 건널목 부분의 확폭공사를 하겠습니다.

③활력이 있는 도시조성

중점시책의 마지막으로는 활력이 있는 도시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역사적인 엔고현상에 따라 매우 어려운 일본의 경제상황은 동일본 대지진재해 부흥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문제와 이미지 저하 피해는 농수산업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의 산업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가 앞으로도 활기에 넘치고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누구나 건강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진흥에 의한 지역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시행한 산업진흥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소비자인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 아래, 사업자, 경제단체, 그리고 행정기관이 제휴한 산업진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브랜드 구축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도시 전체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점에 있어서 ‘이치카와 배’의 활용을 중심으로 생산물의 시장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 이외의 농산물에 대해서도 브랜드화를 진행시켜 가겠습니다.

또한, 이치카와 선물 카탈로그 및 이벤트 개최를 통해 이치카와로 들어온 물고기 및 김 등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PR함으로써 새로운 지역활성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기업의 판로확대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의 창출을 위해 금년도에 개최하여 큰 평가를 받은 ‘비즈니스 플랜 발표회’에 대해서는 주변의 이웃 시의 협력을 얻으면서, 한층 더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광역적인 기업간 제휴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상점가 진흥에 대해서는 거리의 조명으로서의 기능도 겸비하고 있는 상점가 등의 LED화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상점회가 실시하는 이벤트 등에 대해 보조함으로써 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농업 진흥에 대해서는 장래에도 안심하고 농업이 계속되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량한 농지로서 보존해 나가야 할 구역 등을 정한 ‘이치카와시 농업진흥 지역정비계획’의 재검토를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감농약 및 감화학비료 등에 따른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 방

식과 근린에 배려한 농약 비산 방지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보조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농업을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 시민에 의한 '이치카와 엔노타이'를 설립하여 작업이 집중해 있는 시기 등의 지원을 통해 농가 후계자 부족과 고령화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양륙 장소인 이치카와어항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어항시설의 개선과 더불어, 지진이나 높은 파도에 대응한 호안 안전확보 및 시민과 어업자 사이의 교류, 그리고 시민이 바다와 친숙해 질 수 있는 공간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년도는 그 실시 설계를 하겠습니다.

고용대책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헬로우워크 이치카와와 이치카와 상공회의소가 합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취직면접회의 규모를 확대시켜 보다 많은 기업이 참가하여 고용의 확대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2009년 10월에 개설한 아이링크타운 전망시설에 대해서는 오픈한 후 50만명을 넘는 분들이 입장하였지만, 신년도에는 우리 시를 비롯한 근린의 관광자원과 물산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코너 및 카페 스페이스를 설치하여 활기와 휴식의 장소로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지진재해의 영향에 따라 중지된 이치카와 시민 낚랑 불꽃놀이에 대해서는 그 재개에 즈음해 대회 3주일 전부터 지역의 축제와도 제휴하면서 불꽃놀이 부활제로서 음식점 둘러보기 '이치카와 바루' 및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 '이치카와 마르쉐' 등 산업진흥 이벤트를 실시해 나갑니다.

계속해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 창출에 대해 말씀해 드립니다.

모토야와타역 북쪽출구 A지구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동과 업무동의 건축공사를 비롯해 관련공사의 착실한 사업 촉진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술지원 및 사업비 보조를 실시합니다.

도시조성에 대한 새로운 대책으로서는 시가지화 구역으로 둘러싸인 시가지화 조정구역에서, 우리 시의 장래 도시조성을 고려하여, 예를 들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도로의 축조를 인정하는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 규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무사시노선 연선 도시조성에 대해서는, 물·수목·농업이라는 매력적인 지역자원을 지닌 북동부 지역 전체를 고려한 후에 마케팅 등을 실시하여 사업효과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외환도로 이치카와시 구간의 본격정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광역도로의 휴식·정보발신, 지역의 제휴기능을 담당하는 '일반도로휴게소'를, 우리 시의 매력을 PR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활기와 교류 및 방재기능을 담당하는 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설치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외환도로의 엔트런스가 되는 바라키·고야 지구에서 검토되어 온 바라키2초메의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는 사업화를 위한 지권자 합의형성을 계속해서 지원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토쿠 임해부의 도시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남겨진 귀중한 재산이 되고 있는 산반제 갯벌에 대해서는 재생과 보전을 도모하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변 만들기를 위해 시오하마 2초메 호안 앞쪽을 모래사장으로 하여 갯벌의 재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산반제 갯벌과 교토쿠 근교 녹지를 잇는 시오하마 지구에 대해서는 귀중한 자연에 둘러싸인 지역이라는 점에서, 또한 도심과의 교통편이 좋은 점에서 이러한 입지 조건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조성을 목표로 하여, 시오하마 2초메의 이치카와 시오하마역 남쪽 약 12헥타르를 제1기 선행지구로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기반정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공원과 운동시설 등의 정비를 계획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미매수 용지에 대해서는 교섭을 진행시켜 가겠습니다.

선행하여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 내의 소년야구장에 대해서는 4월에 개설합니다.

3. 신년도의 주요시책

이상으로 신년도의 중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종합계획의 5가지 기본목표에 따라 차례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끼는 도시)

먼저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끼는 도시’를 목표로 하는 시책입니다.

시민이 인생의 어느 스테이지에 있어도 꿈과 활력으로 가득찬 진정한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복지를 비롯한 생활과 밀착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필요한 의료의 확보에 대해서는 민영화한 도쿄 베이·우라야스 이치카와 의료센타가 4월에 새로운 병원에서 18개 과목의 진료를 개시합니다. 그 후 단계적으로 의료내용을 정비해, 구급 및 주산기 등의 의료를 확충해 가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만들기에 대해서는 평생에 걸쳐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산부 및 유아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안심하고 출산 및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임산부 유아 건강진단을 실시해 나감과 동시에 성인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 암검진, 간염검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던 유행성 이하선염의 접종연령을 2세부터 1세로 내려서 확대실시하는 외에도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궁경암 예방백신, 히브백신, 소

아용 폐렴구균백신의 접종을, 계속해서 전액 공비 부담으로 실시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시책으로서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0살
아기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의료비를 계속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동학대의 급증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어린이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배려를 필
요로 하는 어린이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계속해서 관계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신속한 대응을 도모함과 동시
에 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계발활동을 실시하고, 그 외에도 어린이 가정 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와 육아에 관한 모든 상담에 응해 드립니다.

또한, 신년도부터는 휴대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고, 행정정보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및
NPO, 육아 씨클 등 민간의 육아지원 정보를 집약한 육아응원 사이트를 구축하여 NPO 등과 협동하
여 리얼타임의 정보를 발신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개되는 지역복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시민의향조사 결과의 분석과 평가를 근거로 하여 지역에 있어서의 상호부조사회
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 ‘제3기 이치카와시 지역복지계획’을 책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내 14개 지구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임하고 있는 지역케어시스템은, 신년도에
미야쿠보·시모카이즈카 지구에서 상점가의 빈점포를 활용한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
이 평소에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서 서로를 돕는 복지 커뮤니티의 충실화를
계속해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는, 신년도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별양호 노인홈이 가시와이
마치에 2개소, 정원 150명으로 개설됩니다.

또한, 신년도부터 시작되는 ‘제5기 이치카와시 노인복지계획 및 개호보험사업계획’에 따라 새롭게
24시간 대응의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재택서비스의 충실화를 도모해 나가겠
습니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또한 시설정비 등 개호서비
스의 충실화를 도모해 가기 위해 신년도부터 개호보험료를 개정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책은, 실어증 장애인의 지원을 실시하는 실어증 회화 파트너 양성강좌를 새롭게
개최함과 동시에, 시내 공공기관 및 대형상업시설 등에 다목적 화장실이나 휠체어 대응 엘리베이터,
슬로프 설치 등의 정보를 게재한 외출 지원 맵을 작성합니다.

마음의 풍요로움과 생활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시대에 맞추어 건강한 생활과 삶의 보람을 찾아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노다이 구장의 노후화된 스코어 게시판을 개수하는 등 스포츠 시설 재정비를 진행시키겠습니다.

또한, 4월에 개교되는 현립특별지원학교 이치카와 오노고등학교의 야구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현에 대해 요청해 왔던 대로 시에서 관리한 후 시민에게 개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에 대해서입니다.

학교의 ICT 환경을 향상시켜, 충실한 학습환경 조성을 진척시키기 위해 아동과 학생이 전자칠판기능의 프로젝터 등을 사용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습지원 시스템이나, 출결 통계, 성적 처리, 통지표 작성 등을 실시하는 교무 지원 시스템 등의 준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초등학교에서는 특색있는 환경보전 활동이나 에너지절약 및 리사이클 활동에 임하기 위해, 학교판 환경 ISO 인정사업을 계속하여 신년도는 신규 5교를 인정하여 2013년도까지 전체 학교 인정을 목표로 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가데나시와의 자매도시체결 50주년을 기념하여 공식대표단의 상호파견을 실시함과 동시에 프랑스 이씨레몰리노시와 새롭게 도시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시켜 가겠습니다.

또한, 지진재해의 영향으로 연기되었던 ‘이치카와 독일 데이’에 대해서는 로젠하임시로부터 공식 대표단을 받아들여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문화와 예술을 육성하는 도시)

다음으로는 ‘다채로운 문화와 예술을 육성하는 도시’를 추구하는 시책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자라온 이치카와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향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칭 문학관의 정비에 대해서는 2013년도 개관을 목표로 평생학습센터의 2층과 3층을 개수함과 동시에, 우리 시와 연고를 지니고 있는 문화인의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제작을 실시합니다.

예술·문화사업의 진흥에 대해서는 이치카와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요시자와 가든 갤러리에서 ‘이치카와의 문화인전’ 및 ‘이치카와시 소장작품전’을 개최하고, 그 외에도 ‘나카코쿠분 지구거리 회유전’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히가시야마 가이이 기념관에 대해서는 2005년 개관 이래 20만명이 넘는 분이 방문해 주셨는데, 신년도에는 특별전으로서 ‘가칭 2인전 히가시야마 가이이와 가와사키 스즈히코’를 개최합니다.

시의 역사 개정편찬에 대해서는 대학의 연구기관 등과 제휴하면서 계속적으로 역사, 민속, 자연의 각 분야에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을 실시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매력적인 도시)

다음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매력적인 도시’를 목표로 하는 시책입니다.

지진재해에 따라 중지된 9개 도현시 합동방재훈련에 대해서는, 에도가와 하천부지 및 시내 초등학교, 현립 현대산업과학관 등을 회장으로 시민이 다수 참가하는 초기적 대응훈련을 비롯해 새롭게 해안 부근에서의 해일을 상정한 피난훈련 및 귀가곤란자 훈련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에 대해서는 소방활동체제의 충실화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소방차량 등의 갱신과 증강을 실시함과 동시에 2013년도에 개시되는 소방지령업무의 공동운용 및 소방구급무선의 디지털화를 진행시켜 가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는 침수피해가 상습화되어 있는 이치카와미나미 배수구역의 빗물대책에 대해서, 배수구역을 중단하는 외환도로 정비와의 조정을 도모하면서, 간선 배수로 및 오와다 펌프장을 정비하기 위한 건설공사 등을 진행시켜 가겠습니다.

또한, 오수에 대해서는 니시우라 처리구 및 에도가와 좌안 처리구의 정비를 진행시켜 가겠습니다.

나아가 합류식 하수도 개선사업에 대해서, 스가노 종말처리장의 빗물체수지, 고속 여과시설 건설 공사를 실시해 가겠습니다.

치수 및 침수대책에 대해서는, 일급하천 오카시와가와 강의 하마미치바시 다리에서 가마가야시 경계선까지 약 1.6 킬로미터 구간의 하도를 확장정비하고, 마마가와 강 유역의 간선 배수로 개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비해 가겠습니다.

도로정비에 대해서는 보행공간의 연속적인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주요역 주변의 중점 지구 및 주요 노선의 보도 단차 해소 등의 공사를 진행시켜 가겠습니다.

또한, 서부공민관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실시합니다.

오노공민관에 대해서도 2013년도 완성을 목표로 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및 연수실 증설공사에 착수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시)

다음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시’를 목표로 하는 시책입니다.

지진재해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우리의 생활패턴을 전력 다량소비형에서 바로잡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년도에도 여름철의 대폭적인 전력부족이 염려되지만, 절전은 동일한 만큼의 전력을 발전시키는 것보다도 필적하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너지절약의 추진 등 환경에의 부담을 저감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0년 4월의 에너지절약법 개정에 따라 금년도는 주요한 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기 위해 공

조설비 등의 운용 등을 정한 관리표준을 작성해 왔습니다. 신년도는 전력 요금의 가격인상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관리표준을 정비해, 설비의 적절한 운용에 노력함과 동시에, 기기의 갱신에 유용하게 쓰는 등 적극적으로 에너지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인주택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과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환경교육이나 팸플릿, 홍보지, 시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계발활동을 실시해 가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고노다이 경사면 숲이나 오마치 자연관찰원 등 귀중한 자연이 남아 있습니다. 자연환경이나 생물의 서식환경을 소중히 함과 동시에 차세대에게 계승시켜 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 지역전략’의 책정을 위해서 전문가에 의한 강연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해, 시민의 이해를 깊게 함과 동시에 시민의견의 청취를 행하면서 원안을 작성해 나가겠습니다.

녹음의 보전과 창출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협동으로 책정했던 고쿠분가와 조절지 표면 활용계획에 따라 나카이케 연못 중앙부분의 표면을 활용한 다목적광장 등의 실시 설계를 하는 등 이치카와시 녹음기본계획에 따라 하천공간이 매력적인 녹음의 오픈 스페이스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클린센터에 대해서는 2023년도까지의 수명연장을 도모하기 위해 안정조업을 확보하면서, 2013년도 완성을 목표로 하여 계획적으로 공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가정쓰레기의 12 분별수집 등의 도입에 따라 쓰레기 감량에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쓰레기 발생 억제의 계발활동 등을 포함한 3R의 방안에 따라 쓰레기감량을 추진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최종처분장 확보에 노력해 갑니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구축하는 도시)

마지막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구축하는 도시’를 목표로 하는 시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행정주체의 공공 서비스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과제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공공으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와의 협동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한 ‘가드닝 시티 이치카와’에서도 시민과 사업자 그리고 행정이 협력하여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회 활동의 지원에 대해서는 범죄방지를 위해 자치회 등이 신년도에 약 1,300개의 방법등을 설치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가겠습니다. 이 중 600개의 방법등에 대해서는 절전효과가 높은 LED 방법등으로의 전환을 촉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자치회 집회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건물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나가며, 그 외에도 새롭게 토지를 구입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제도를 창설하여 제도의 확충을 도모해 나갑니다.

시민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신년도에 8년째를 맞이하는 1% 지원제도를 보다 좋은 제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이나 시민활동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의 재검토에 대해 의논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년도에도 계속해서 중점을 두는 마케팅사업에 대해서는, 전자메일을 사용하여 시민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집하는 'e 모니터 제도'에 대해, 등록자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모니터 간이 등록기능을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교부건수가 10만명을 넘은 주민기본대장카드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의 세븐일레븐에서 주민표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발행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4월부터는 세금 증명서 및 호적증명서 발행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년도의 중점시책 및 주요시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끝맺음

우리 시를 웅대하게 흐르는 에도가와 강은 에도시대에 이루어진, 도네가와 강의 물을 노다 부근에서 나누는 거대공사에 의해, 조시로부터 도쿄만에 이르는 중요한 항로가 되었습니다.

물자의 운반을 비롯해 사람들의 교류, 농업의 용수 등으로 에도 근교의 도시기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교토쿠 지구를 비롯한 연안지역에는 많은 시장이 형성되어 크게 번창했다고 합니다.

현재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외환도로도 현대의 유통 및 교통 등 다양한 네트워크의 재구축이며, 우리 시는 다시 한번 세기의 대사업을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신년도의 시정방침에서는 재해에 강한 도시조성, 새로운 도시조성의 착수,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업의 착실한 추진, 이 세 가지를 기본방침으로 삼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말하자면 흙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해, 밝은 미래를 꿈꾸며 씨를 뿌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애지중지하며 길러 온 수목에 훌륭한 꽃을 피울 수 있게 하여, 다음 세대에 자랑할 수 있는,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이치카와의 미래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으로서 일반회계로는 전년도 당초비 0.9% 증가한 1,338억엔으로 하고, 또한 특별회계 전체에서는 이치카와역 남쪽출구 지구 시가지 재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합니다만,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에서의 보험금부비의 증가 등에 의해, 전년도 당초비 3.4% 증가한 762억6,900만엔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영기업회계를 합한 예산총액은 전년도 당초비 1.7% 증가한 2,129억8,000 만엔입니다.

이상, 시민 여러분 및 의원 각위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신년도의 시정방침을 말씀 드렸습니다.